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부휴선사 '天地心'

선사의 부모는 자식이 없어 "만약 자식을 얻으면 출가 시키겠다"고 서원하고, 마을 어귀에 있는 기석(倚石)에 기도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 구슬을 주어받아 삼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난 이가 바로 부휴 선사다. 조선 중종 38년(1543) 오수 藥樹 : 지금의 남원에서 출생한 선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뜬세상(淨世)이 매우 어두우니 출가하겠습니까"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선사는 지리산 영원사 신명 장로에게 삭발염의하고 부용영관 대사에게 수좌하였다. 스승의 심법을 터득한 선사는 송광사, 쌍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다. 지리산에 토굴을 마련하고 정진하던 어느 해 가을 선사는 토굴에 함께 있던 개가 낙엽을 물고 오는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천지심(天地心) : 하늘과 땅의 마음과 나의 한마음)

광(念回光)하는 수행을 하면 환안(환안이 열리어 일체 망상이 부서져 본연의 심공이 반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함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성속(聖俗)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로소 번뇌의 불꽃이 맹렬한 사바 속에 있을지라도 청정한 자성이 결코 물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선사께서는 수행에 있어 삼요(三要)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삼요란 대신근(大信根), 대의단(大疑團), 대분지(大憤志)이다. 대의단과 대분지를 중시해서 발분망신(發憤忘身)하고 절실히 의단을 일으켜서 사물을 응해서 현풍(玄風)을 일으키는 학(學)을 펼치셨다. 여기서 한결을 더 나아가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으면 연꽃이 불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깨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사물이 위협한 일에 직면하여 눈을 감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만 한다고 설하였다. 마음이 죽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고 산 정신으로 문제를 똑바로 보

한 생각 되돌려 비추는 수행에

망상 부서지고 눈 밝아지려니

秋山疎雨過(추산소우과)
霜葉落庭苔(상엽락정태)
白犬通消息(백견통소식)
龍禪鶴駕來(라선어하래)

가을 산중에 비가 지나갔나니, 서리 맞은 잎이 앞뜰 이끼 위에 떨어진다.

하얀 개에게 소식을 전하고, 선정에서 깨어나 학(鶴)을 타고 오도다.

선사는 문자를 뛰어넘어 격의선도리(格外禪道理)를 종지로 삼아 참구했다. 선사의 활구는 이러했다. "제 몸뚱이도 있고 간절히 의단(疑團) :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으키니 화지일성(因地一聲 : 땅 위에서 배를 고는 소리에 천지가 무너지거늘 어찌 북쪽 바다 남쪽 땅을 논의 할 것인가"며 활구하였다. 선사께서는 남쪽이다, 북쪽이다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것일 뿐 광대무변한 허공계에는 그런 분별이 붙을 수 없다는 것임을 설파하였다. 또한 선사의 가르침은 일념회

면(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상을 깨닫고 보면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무한대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한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 중생들에게도 지혜롭게 사는 양식이 되고 있다.

선사가 두류산에 주석할 때였다. 성지(性智) : 풍수설에 밝은 술재의 무고로 제자 벽암과 함께 한성에 암송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때 옥사장이 선사를 보니 기개와 도량이 당당하고 언설도 또한 비범해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다음날 임금의 선사를 불러 법요를 물어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자란 가사와 벽재장삼, 염주 등을 하사하고 선사를 대사로 추대하는 큰 법회를 열었다. 이후 많은 민중들은 선사를 찾아 법을 구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찾아온 납자들도 7백여 명에 달했다.

선사는 광해 6년(1614) 칠불암에서 세수 72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법명은 선수(善修), 법호는 부휴(浮休)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야옹스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겠다는 확고한 믿음과 정진력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하신다.

“인과법 철저히 믿어야 진짜 불자”

가까이서 뵈 큰스님

야옹스님 (서울 승룡사 조실)

야옹(怡翁)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서울 상도동 소재 승룡사는 걸모습만으로는 절로 보이지 않았다. 그냥 허름한 옛날 집이었다. 벽화나 단청도 없고 장엄물도 없었다. 35년전 야옹 스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 그대로라 한다. 스님은 '초막'이라 부른다. 스님은 이곳을 새로 말씀하게 중창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신다. 걸모습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야옹 스님을 뵈고 3배를 하려 하자 1배만 하라고 손을 흔드셨다.

"내가 절발을 공덕을 아직 못 쌓았는데 절만 많이 받으면 업만 쌓는 거라"

올해 85세인 스님은 신도들이 3배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말리신다고 한다.

절을 마치고 앉자 스님은 대뜸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겉치레만 좋아하며 살면서도 전혀 잘못된 줄 모른다는 말을 입에 여쭙다. 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기 때문에 다니고, 기도하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체, 다니는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불자들의 무지를 지적하셨다.

"요즘 사람들이 철저히 믿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부처가 나를 제도해 준다고. 기도비 갖다내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자신을 극락세계 보내준다고. 복이 없는 중생에게 복된 삶을 준다고.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불교 헛 믿는 거예요. 경전에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치 못한다고 했어요. 만일 제도한다고 하면 천 사람만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기도 잘하면, 돈 얼마 내놓고 열심히 빌면 풀주고 돈 주고 다 줄줄 알고, 재산도 주고 다 줄 줄 있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중생 각자가 자기자신을 스스로 제도해야 하는 겁니다."

3배 하려하자 "1배만 해라"

85세 노스님답지 않게 평평평평한 목소리의 일갈이 매섭고 날카로웠다.

스님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부처님이 만약 중생을 제도한다고 치면 이 세상 50억, 60억 되는 인구중에서 가난하고 고달프고 굶주린 인간의 삶이 왜

있게 되느냐,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불쌍한 중생들이 많으냐는 것이다. 대자대비한 부처님께서 그런 처지를 나몰라라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불자라면 이것만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중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을 제도하고, 복받는 일도 자기가 진실하게 지어 받을 수 있다는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야 진짜 불자입니다. 자기는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자신은 노력도 안하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자기를 해 주시겠지 하고 믿으면 불교 헛 믿는 사람이야."

님들은 무당 점쟁이와 같아!"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고 불멸을 만난 것만도 귀하고 귀한 인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에서 부처가 된 성불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성불의 확신을 갖고 불성을 뒤엎어 스스로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도(自度)하는 길이나. 그 방법은 팔만사천 법문으로 다양하게 설해져 있으니 우리는 그 길대로 열심히 따라 걸으면 되니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만났느냐고, 이 귀한 인연을 그냥 스쳐보내는 사람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사람이라고 스님은 강조하셨다.

“기도비 내고 매양 부처님께 복만 빌면 헛 믿는 불자인데...”

스님은 법회에 자주 법사로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게 되는 데 가장 많이 하는 법문이 바로 이 소리라고 하신다. 불자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정진력과 불퇴전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요새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 스스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을 드리자마자 다시 일갈이 날아온다. "아무리 약해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부처가 제도할 줄 알면 부처 헛 믿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스

부처님께서도 생노병사 문제를 풀기 위해 출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생사가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느냐고 여쭙자 스님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일이라고 착각하거나 죽음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시며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증을 갖지 말고 담담무애해야 된다"고 하신다. 즉 죽는 것에 대해 겁을 내지 않도록 죽음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죽음을 자신있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1기 佛敎儀式(범음·범매)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12월 15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12월 17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삼매체험 선(禪) 수련회

- 5일동안 수행이 자신을 찾고 자신의 삶을 밝힌다 -

선(禪)을 기능 훈련과 같이 운동을 익히듯이 몸에 베이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하였습니다. 수행을 시작하신 후 마음에 여유는 생기셨습니까. 또 다른 집착을 만들지 않습니까

- 대상 및 인원 : 직장인, 주부, 대학생, 스님 70명
- 수련일정(4박 5일) - 1차 : 12월 23일 - 26일, 2차 : 12월 30일 - 02년 1월 1일
- 접수 : 12월 17일까지.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 예약을 하세요.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합니다.)
-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 회비 없음(수련회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헌분 헌금 후원을 자진하여 수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신청 및 서류
 - 성명(한글, 한자) 2.주소(주택, 직장)
 - 전화(주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 직업-학교(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 참가 유·무 (유 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 원하는 차수 ※ '1~9'의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신발(행선용), 작업용 장갑, 방한복장
- 일상수행내용
 - 수행종목인, 법문, 점검(전체 또는 개별 수시 점검) 행선 10-20분, 좌선 5-10분, 예불, 선문독송(마음 왕, 마음 쉬는 법), 요가, 율령, 기상 4시, 취침 21시 30분
 - 문의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월~금) 일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능합니다
 - 특징 : 본 수련의 수행방법을 따라 지도 받아 실천하면 무심 삼매를 체험할 수 있으며, 먼저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 나고, 자신이 처한 생활의 속박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생활을 할 수 있음.
 1. 기복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는 수행을 찾는다.
 2. 수행권의 확립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한다.
 - 후원동참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후원이 가능합니다.
 - 1) 1구좌 10만원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음)
 - 2) 온라인 - 농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000548 - 예금주 : 원명선원
 - 접수처 제주시 화북 1동 조계종 원명선원 전화 064-755-3322 전승 064-755-0880

열린도량 한라산 원명선원